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청운동 주민들 분개

〈장성군 장성읍〉

정당한 절차 거쳐 마을회관 위치 선정·부지 매입

일부 언론·시민단체 “특혜 의혹” 여론몰이 빈축

최근 일부 지방 일간지와 장성의 한 시민단체가 장성군 장성읍 청운동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 주민들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군의회 의장의 땅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매입했음에도 특혜라고 주장하는 등 부정적 여론몰이를 하면서 청운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일 청운동 주민 등에 따르면 1천100세대 2천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청운 1, 2, 3동은 장성읍 중심에 위치해 있음에도 마을회관이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활용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의사결정권을 갖는 순수 주민자치사업이다.

주민 20명으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는 청운동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청운1동 마을 홍보관 위치를 선정하고 부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한 언론매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주민들은 청운 1동 마을 홍보관 위치 선정과 부지 매입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지리적 현황과 주변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운 1동은 장성읍의 중심지인 장성역 일대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건물 이 없는 나대지의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업지역의 높은 땅값 때

문에 주민 자체적으로 마을회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하다.

추진위원회는 수차례의 의견 수렴과 회의를 통해 주민 숙원을 해소하고자 했고 2017년부터 1년 동안 청운 1동 마을회관을 겸용한 마을홍보관 건립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2018년엔 토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비싼 땅값 때문에 토지 확보에 실패했다.

사업 무산 위기에 봉착한 추진위원회는 청운공영주차장 인근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폐가옥이자 현 군의회 의장이 선대로부터 보유해온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수차례의 설득 끝에 어렵게 승낙을 얻었다.

표준공시지가를 기초로 각 지자체에서 전국의 토지가격을 산정해 공시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다. 공시지가보다 싼 거래가가 더 비싼 이유는 같은 토지라 하더라도 주변 개발계획, 호재, 입지에 따라 토지의 실 거래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라도 도로와 인접해있는지, 역세권인지 등에 따라 가격은 길 하나 차이에도 크게 달라진다.

해당 토지의 경우 부지 매입 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사에 의해 경제적 가치를 판정, 그 결과를 가액해 이뤄진 정당한 거래였다는 게 추진위원회 입장이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군의회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개인의 재산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내놓으라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오랫동안 흥가, 폐가로 방치된 탓에 우범지역이 될 수 있었던 부지를 매입, 경관 개선과 주민 숙원을 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의원이라는 이유로 특혜라며 몰아붙이는 의도는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고 강조했다. /장성=김문태기자



담양군의회, 상생 농업실현 공청회

미래 먹거리 구축 방안 의견 수렴

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는 1일 “최근 담양리조트에서 상생의 농업실현을 위한 ‘농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런 공청회는 이계호 국회의원, 최형식 담양군수, 백대연 NH농협 담양군지부장, 지역농협장을 비롯 담양군의 주역인 농·축산·임업인 등 200여명의 농업인들이 참석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업인과 대화에서는 미래 먹거리 구축 위한 농업현안 문제에 대해 주민 스

스로 진단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공청회에서는 ▲농업 인력난 해소방안 ▲작업장 환경개선지원 ▲무허가축사 양성화방안 마련 ▲축산시설 거리제한 등 제도적 장치 완화에 대한 건의와 ▲임산물 수확 작업로 개설 지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등 총 22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또한 WTO 개도국 특혜제지 반대 결의문을 군의회에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번엔 실시된 공청회가 1회성이 아닌 매년 2회 이상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담양=정승균기자

장흥 목재산업지원센터

지적재산권 확보 총력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가 생산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일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에 따르면 2016년 개관 후 총 17건의 특허청 디자인권 및 상표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GD(우수디자인) 등을 출원해 현재 15건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목재를 활용한 목재텀블러를 개발, 특허청에 기술특허 및 디자인권에 대한 출원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6건의 디자인권이 확정돼 목재텀블러에 대한 디자인권을 20년간 존속 가능한 효력을 갖게 됐다.

목재산업지원센터는 올해 장흥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산림문화박람회를 통해 명패, 상패, 생활소품등을 전시 홍보하며 다양한 제품을 생산,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장흥=노형록기자



광양시 ‘찾아가는 어린이 동절기 안전교육’

광양시는 최근 중마동 사임당어린이집에서 ‘찾아가는 어린이 동절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남도안전학당강사 소속 안전 전문 강사 6명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소화기 사용법을 비롯, 심폐소생술 익히기, 교통, 지진대피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광양시는 최근 중마동 사임당어린이집에서 ‘찾아가는 어린이 동절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오는 20일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 40개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은 남도안전학당강사 소속 안전 전문 강사 6명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소화기 사용법을 비롯, 심폐소생술 익히기, 교통, 지진대피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광양시제공

순천시,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 박차

전남TP 등과 업무협약…금속가공 전문인력 양성

순천시가 금속 가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천시는 1일 “최근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학장 임종대)과 함께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 및 금속 관련 산업 육성 정

책에 따른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전문 인력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마그네슘상용화지원센터 참여기업 설명회에서 기업들이 금속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개설 파트너로 전

남테크노파크와 한국폴리텍대학을 선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순천시는 마그네슘을 포함한 금속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는 금속산업 숙련공 육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맡기로 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그네슘 상용화 센터의

장비를 활용해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성공적인 마그네슘 소재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금속가공 전문인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 금속산업계에는 활성화와 동력으로,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마그네슘 소재 부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비 20억원의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년 3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남정민기자

남해안남중권 지자체 상생발전 ‘맞손’

정현복 광양시장 정기회의 참석 공동현안 논의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최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제15차 정기회를 개최하고 남해안권 상생발전을 위한 2020년 공동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권오봉 여수시장, 허석 순천시장, 송귀근 고흥군수, 조규일 진주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장충남 남해군수, 윤상기 하동군수, 임정주 보성군 자치행정국장 등 전남 5개, 경남 4개 시·군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주요 협의안건은 ▲남중권 연계관광

과 시티투어버스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수행의 건 ▲제2관공항 남중권 유치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의 건 ▲2020년 제임세출예산 승인의 건 ▲협의회 임원 선출의 건 등이다.

정기회 결과에 따른 내년도 사업예산은 약 5억8천여만원으로 남중권 우수농·특산물 공동판매장 운영, 광역 시티투어버스 운영, 주민생활 밀접분야 합동점검, 문화예술·체육 교류전 등 총 10개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광양=허석식기자

장성토지【급매】

광주에서 20분

(장성군청 ~ 장성댐사이)

⇒ 국도도로 12m접(앞면30m)

① 평수230평 매매가 1억 6천만원

② 평수1,080평, 매매가 시세 10억

↳ 급매가 6억원

⇒ 전원주택,물류창고,사무실 투자적합

■추천물건

①장성읍 용강리 국도변접합(760평)

→ 매매가8천5백만

②장성 아은리(계획관리)500평

→ 매매가4억7천만

③장성남면월정리(1093평)

→ 매매가6억5천만

④장성필암리(답)(925평)

→ 매매가2억8천만

⑤담양읍메타세퀘아도로접(1470평)

→ 매매가8억2천만

⑥광주서구서창(197평)시청에서20분거리

→ 매매가5억9천만

010-6670-9800

상가매매

① 광산구 첨단 쌍암동상가 10층 【24】평
(대형물1,콘방1,부엌1,화장실1)
-주택,사무실 적합 -즉시 입주가능,올 리모델링
-매매가 7천8백만원

② 치평동상가 6층~7층 【140평】
(유홍주점,카페,노래방적합)
-콜롬버스영화관 바로 앞
-감정가 6억5천만원
-매매가 4억2천만원
(보3천만원,월280만원,용자2억8천만원)

③ 치평동상가 7층 【60평】
-전망최고
-감정가2억8천만원 / 급 매⇒1억5천만원

④ 용봉동 원룸 매매 【룸15개, 주택1】
-매매가 7억2천만원
(보증금4천만원,월수입450만원,용자2억8천만원)

상가임대

① 광산구 첨단 쌍암동상가 10층 【24】평
(대형물1,콘방1,부엌1,화장실1)
-주택,사무실 적합
-즉시 입주가능,올 리모델링
-보500만, 월40만원(용자3천만원)

② 치평동상가 7층 【60평】
(Bar, 유홍주점,카페,노래방적합)
-콜롬버스영화관 바로 앞
-보1천만원,월90만원

010-6670-9800

경매교육 【기초반·특수반】

① 기초 실전반 모집

(무료강의 병행)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 실전반

◎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모집

이제 경매만이 큰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지분,엔피엘)

※10억짜리 부동산 ⇄ 3억에 가능

④ 전문반 모집

· 책상, 컴퓨터 제공
· 주1회 물건분석 스테디

⑤ 경매투자 연30%수익 가능

· 근저당 설정시 연20% 가능

010-4667-9820